



제목	The History of Theater in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Mage Publishers
발행일	2005. 6.
저자	Willem Floor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340
ISBN 또는 ISSN	978-0934211291

내용 요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극과 이란을 동시에 연상하기 힘들지만, 사실 극적 표현들은 이란 문화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오던 형태의 예술이다. 약 2500 년 전, 왕과 평민들은 모두 음악과 함께 춤과 마임 형태의 희극을 즐겼다. 또 다른 고대 연극의 형태는 인형극의 예술이었고, 약 1000 CE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슬람 이전의 이란에서 세속적인 서사시 전통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슬람 시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연극이 수행되었고, 이에 더해 이맘 호세인(Imam Hoseyn)의 순교를 재현하는 유일한 형태의 이슬람 종교 서사시(ta'ziyeh-khvani)가 제작되었다. 전통적인 이란 극장에서는 왕실 및 부유층들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들이 대중을 위해 공연하는 예술가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문화에 있어서 고등 문화와 하등 문화의 실제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란 연극에서는 종교적이고 서사적인 드라마의 경우는 제외하고 거의 대본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 그 이후 1878년 대본에 의존하는 유럽 연극이 도입되면서 이란 연극 공연도 현대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